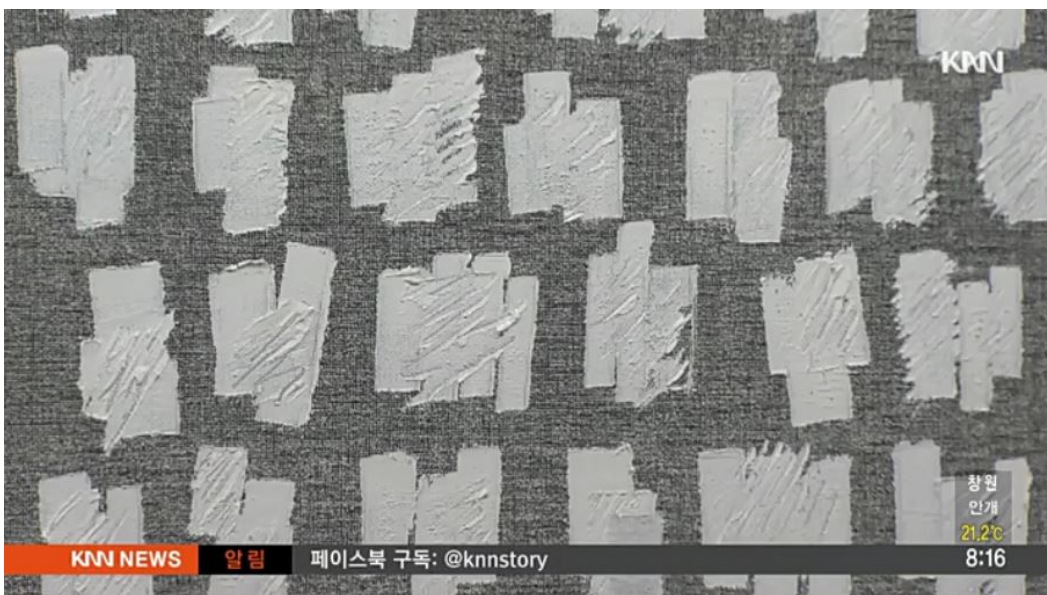


# 핫이슈 클릭

June 5, 2019 | 이유경 기자







{ 하종현 '접합'전,~7.28., 국제갤러리 부산}

마대자루를 토대로 고유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

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자,  
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의 거장 하종현 화백의 개인전입니다.

이번 전시에선 작가의 최근작 1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.

작가가 새롭게 도입한 적색과 청색, 다홍색의 대형 크기 '접합' 연작을 국내에  
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.